중국지역

▣ 中, 2007 년이면 전력 남아돈다

○ 중국의 극심한 전력난이 내년을 고비로 누그러져, 2007 년에는 공급과잉 국면에 들어설 전망임.

○ 중국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 따르면, 올 1 분기 중국의 전력 소비는 4,804 억 5 천만 킬로와트시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.7% 늘어난데 이어, 연간 전력 사용량은 2 조 1 천억 킬로와트시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. 그러나, 발전용량 증가율은 9.6% 증가에 그쳐 연간 3 천만 킬로와트 가량의 전력이 부족할 것으로 우려됨.

○ 중국국가전력망공사(國家電網公司) 등에 따르면, 중국은 올해 사상 최악의 전력난을 겪을 것으로 보이나 전력부문 투자 팽창세로 내년에 다소 호전된 후 2007 년에는 공급과잉 국면을 보일 전망임.

□ 전력부족 省市 2 년새 2 배 증가해 24 개

○ 지역별로 올 1 분기 현재 전력 공급부족을 겪고 있는 곳은 24 개 성•시로 2002 년의 12 개, 2003 년의 23 개 성•시와 비교하면 증가 추세에 있는 것으로 분석됨.

○ 5 월 하순 이후 계절적 요인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면서 3 분기에는 전력난이 극심할 전망임.

□ 화동지역이 가장 심각

○ 중국의 전력난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동북 일부 지역은 다소 여유가 있는 편이나 저장(浙江)성, 산시(山西)성, 닝샤(寧夏)자치구 등지에선 전력 부하율이 93%를 넘어서 정상 수준(82~85%)을 크게 웃돌고 있음.

○ 또한, 산둥(山東)성과 산시(山西)성에선 화력발전소의 석탄공급이 부족하며 화둥지역은 수력부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. 올해 전력부족 예상분 3 천만 킬로와트 가운데 1,700 만 킬로와트는 화동지역에서 부족한 전력임.

□ 2008 년까지 年 35%선 투자 예정

○ 전력 부족의 원인은 사용량 증가율에 비해 전력 설비투자 증가율이 크게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. 지난해까지 최근 3 년간 2000 년 이후 전력 사용량 증가율은 각각 9.03%, 11.6%, 15.4%이었으나, 설비투자 증가율은 각각 6.88%, 6%, 8.39%에 그고 있음이 이를 반증해 주고 있음.

○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경제연구소에 따르면, 중국은 올해부터 2008 년까지 전력투자 증가율이 매년 35%선에 달할 것으로 알려져 2007 년 중에는 전력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.

(문의처 : 상하이무역관 박한진 chinapark09@naver.com)